10.15686/fkl.2023..60.329

증언과 상상

-일본군‘위안부’의 기억과 포스트기억 예술

김려실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목차

1 ‘위안부’는 말할 수 있는가?
2 불가시화된 증인으로서 ‘위안부’의 아기
3 증인에 대한 증인으로서 관계자의 기억
4 초국적 위안부학(學)을 위하여

이 과제는 2022학년도 부산대학교 교수국외장기파견지원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국문초록

지난 30년간 일본군‘위안부’ 운동은 한일 간의 역사 문제나 일제의 전시 성범죄에 대한 고발을 넘어 위안부의 기억을 전지구적 기억문화 속에 자리 잡게 했다. 2015년 피해자를 배제한 정부 간 위안부합의가 오히려 역사적 정의를 추구해온 위안부 운동을 재활성화하고 성 착취와 젠더 폭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역능을 결집한 가운데, 위안부의 기억과 증언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재현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위안부는 말하는 서발턴이라고 할 수 있는가? 위안부 운동이 제도화되면서 누구의 어떤 기억이 보편적인가를 결정하는 재현의 위계질서가 작동하게 되었다. 또한 지식인이 서발턴 개인의 다층적 경험을 공적 증언으로 ‘번역’하는 사이 재현은 굴절되고 위안부의 목소리는 공적 영역 안에서만 들리게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2015년 위안부합의 이후 포스트기억 세대의 기억 작업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 그들이 불가시화된 증인, 전형을 벗어난 피해자, 말해지지 않은 증언을 상상함으로써 어떻게 재현의 위계질서와 증언의 아포리아를 넘어서고자 하는가를 분석한다.

국문핵심어: 한일 위안부합의(2015), 일본군‘위안부’, 포스트기억, 위안부학, 전지구적 기억문화, 『흐르는 편지』, 「김복동」, 「보드랍게」

1 ‘위안부’는 말할 수 있는가?

「서발턴은 말할 수 있는가?」(1988)라는 스피박의 질문에 응답하여 아래로부터 여성의 역사를 쓰고자 한 여러 시도 중 가장 활발하며 전복적인 사례는 아마도 일본군‘위안부’(이하, 따옴표 생략) 운동일 것이다. 1991년 김학순의 공식 증언 이래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수많은 학자, 예술가, 활동가 등이 참여한 증언 청취와 아카이빙은 2차대전기 일본의 전시 성범죄를 고발했을 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들의 국사(national history) 아카이브의 젠더화되고 계급화된 편향과 구속을 드러내며 위안부의 역사를 잊지 말자는 민간의 기억 운동으로 이어졌다. 한국에서 처음 제기된 위안부 피해자들의 전후 배상 요구는 한일

간의 역사 문제를 넘어 여성 인권 문제로 확장되었으며 이제 위안부의 기억은 국가의 경계를 초월한 "전지구적 기억문화"[1]의 일부가 되었다.

2015년 피해자를 배제한 한일 정부 간의 위안부합의가 아직 실현되지 못한 정의로서 위안부 운동을 재활성화하고 성 착취와 젠더 폭력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역능을 결집한 가운데, 위안부의 기억과 증언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평화·인권 운동과 저항적 민중 예술에 원천과 영감을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들이 남긴 '기억의 상관물'[2]은 그들의 목소리에 공명하는 포스트 세대에 의해 시, 소설, 조각, 회화, 동화, 만화, 사진, 가요, 영화, 온라인 동영상, 위안부 후원 상품 등으로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위안부를 '말하는 서발턴'으로 간주해도 좋을 것인가?

위안부 운동 초창기에 위안부의 목소리를 대리해온 활동가-지식인들은 일본의 망각과 망언을 규탄하고 생존자의 기억을 역사화하기 위해 증언 수집에 전념해왔다. 그러나 부정확한 숫자로만 남게 되는 서발턴의 죽음은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5만에서 20만이라는 추정치[3] 안에서도 증언을 남기지

---

1 기억문화(Erinnerungskultur)의 역사를 연구해온 독일의 사학자 크리스토프 코르넬리센(Christoph Cornelißen)은 "역사적 사건과 인물 및 과정에 대한 의식적 기억의 모든 가능한 형태"로 정의하고 "탈역사적이거나 심지어 반역사적 집단기억의 형태들 외에도 (중략) 역사학 담론들과 어떤 식으로든 흔적을 남긴 개인의 제시된 기억들"까지도 기억문화에 포괄한다. 마르틴 뤼케·이름가르트 췬도르프, 정용숙 역, 『공공역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20, 44쪽에서 재인용. 이 정의에 따르면 위안부를 인정하든, 부정하든 위안부는 인류의 기억문화 속에 여성에 대한 전시 성범죄의 희생자로 이미 저장되어 있다. 한편 미국의 사학자 캐롤 글럭은 1991년 이후의 위안부는 홀로코스트와 마찬가지로 2차대전에 대한 공중의 기억을 바꾸었고 법, 증거, 정치, 공동 책임에 변화를 불러왔으므로 전지구적 기억문화(global memory culture)의 구성요소가 되었다고 본다. Carol Gluck, "What the World Owes the Comfort Women," eds, Jie-hyun Lim and Eve Rosenhaft, ***Mnemonic Solidarity: Global Interventions***, Palgrave Macmillan, 2021, pp.73-104.

2 '기억의 상관물(correlatives of memory)'이란 포스트기억 세대에게 피해자-증인의 기억과 감정을 매개해 주는 외부의 상징, 이미지, 증언, 글, 그림, 사물(유품) 등을 가리키기 위해 필자가 만든 조어이다.

3 일본군 부대의 숫자 또는 일본 육군이 장병에게 배포한 콘돔 숫자로 추산한 위안부 숫자이다. 캐롤라인 노마, 유혜담 역, 『'위안부'는 여자다: 여성주의 관점으로 '위안부' 역사를 복원하다』, 열다, 2020, 63쪽.

못하고 희미하게 사라진 피해자는 증언을 남긴 피해자보다 수천 배 더 많이 존재했다. 말할 수 없는 증인들이 불가시화된 가운데 국가에 등록된 생존자[4]의 증언은 위안부의 경험이 초국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경계에 따라 배치되어 왔다.[5] 증언을 남긴 셀 수 있는 생존자는 어떤 위안부가 전형화되는가를 거의 결정지었고 커밍아웃의 공식화로서 국가 등록은 위안부 재현 서사에서 서사적 클라이맥스를 담당해왔다.[6]

서발턴의 기억은 긴 망각의 터널을 벗어나 역사화되는 순간 다시 제도라는 이름의 다른 터널 속에 갇힐 위험에 처한다. 증언집을 비롯하여 수요집회, 소녀상, 위안부 기림의 날, 기념관과 박물관 등 여러 유무형의 제도화된 재현을 통해 위안부 생존자의 기억이 역사화되면서 누구의 어떤 기억이 보편적인가(혹은 이상적인가)를 결정하는 위계질서가 작동하게 되었다. 기억-증언-등록이라는 제도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지식인이 위안부 개인의 다층적 경험을 공적 증언으로 '번역'하면서 빠지게 되는 이와 같은 "증언의 아포리아"[7]는 사실 증언 그 자체보다는 증언의 재현에 내재된 문제이다. 증언은 투명하고 자명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언어로 재현되기 때문에 굴절될 수밖에 없다. '강제연행된 순결한 소녀'

---

4 1993년 6월 11일 제정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생활안정지원법」(법률 제4565호)에 따르면 피해자 신고, 심의, 결정을 통해 등록된 자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라고 한다. 즉, 국가의 경계 너머에 있거나,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에서 탈락한 피해자들은 법적으로는 피해자로 간주되지 않는다.

5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814아카이브'와 (재)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의 '전쟁과여성인권아카이브'는 피해자를 한국, 북한, 재일조선인으로 나눠 국적의 틀 안에서 증언과 관련 자료를 수집, 분류, 배치하고 있다. 한국 국적 피해자에 비해 다른 두 그룹의 피해자에 관한 자료는 매우 부족하다.

6 위안부 문학, 영화에서 국가 등록의 서사적 기능에 대해서는 이혜령, 「그녀와 소녀들: 일본군'위안부' 문학/영화를 커밍아웃 서사로 읽기」, 『반교어문학』 제47집, 2017, 253쪽 참조.

7 "증언의 아포리아"에 대한 고민의 결과 지식인의 위안부 증언 청취와 수집에 나타난 변화를 1990년대에 정신대연구회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가 간행한 3권의 증언집과 여성국제전범법정 국면을 계기로 2000년 이후에 간행된 4권 이후의 증언집을 비교함으로써 조명한 논문은 김수진, 「트라우마의 재현과 구술사: 군위안부 증언의 아포리아」, 『여성학논집』 제30집 1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3 참조.

그리고 '여성인권 운동가가 된 위안부 할머니'라는 틀에서 벗어난 위안부의 증언은 청취자뿐만 아니라 증언자 스스로에게도 '부적절한' 것으로 인식되어 슬프지만 진부한 재현이 반복되어왔다. 이 슬픈 진부성을 벗어난 목소리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굴절되어 비난의 대상이 될 때 위안부의 목소리는 공적 영역 안에서만 들리게 된다.[8]

재현의 위계질서는 생존자들 사이에서만이 아니라 한 생존자의 여러 증언 행위 안에서도 작동한다. 사적인 이야기임을 전제로 하는 고백과 달리 공적인 이야기인 증언은 청자의 지식과 기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증언자는 자신이 어디서 누구에게 말하고 있는지 의식하면서 스스로 언어와 행동을 통제한다. 초창기 위안부 운동과 연구는 일본으로부터 사죄와 배상을 촉구하기 위해 2차대전 중 일본군의 성노예제와 전시 성폭력의 진상 규명에 집중했다. 따라서 그 시절에 수집된 증언은 생존자의 일생을 두고 보면 비교적 짧은 시기인 10대, 20대 시절의 고통스러운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위안부 이후의 삶과 증언 이전의 삶은 우선순위에 밀려 자세히 증언되지 않았다. 그로 인해 위안부의 강제연행과 위안소 경험에 관한 우리의 지식은 지난 세기에 비해 확장되었으나 생존하지 못한 피해자나 생존한 피해자의 다른 삶의 경험, 가령 동아시아 곳곳으로 끌려간 위안부가 일본의 패전 이후 어떻게 버려졌고 살아남았고 귀환했는가, 전후 일본의 식민지에서 해방된 동아시아 신생 독립국의 국민이 된 그들의 삶의 궤도가 어떠했는가에 대해 우리는 잘 알지 못한다.

한편 위안부 담론 공간의 괄목할 만한 확장과 더불어 2015년의 위안부 합의에 대한 대응으로 '증언 이후의 증언'이 주요 문제로 부상하게 되었다. 현실적으로 지금은 위안부 피해자가 생을 마감한 이후 그들의 기억을 어떤 방식으로 이어가야 하는가를 모색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홀로코스트에 관한 기억 연구가 시사점을 제공한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증언과 기억은 경험 세대의 죽음 뒤에도 후손 세대로 잘 전달되었고 두 세대의 노력에 국제사회가 응답함

8 예를 들어 2020년 21대 총선 직후 이른바 '정의연 사태'와 관련하여 '피해자-인권운동가' 이용수의 기자회견에 쏟아진 비난은 한국 사회가 생존자로부터 위안부 시절의 기억만 재현하기를 원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이용수는 피해자일 뿐만이 아니라 30여 년간 계속되어온 위안부 전후 배상 운동의 주요 증인이자 운동 주체이다.

으로써 홀로코스트는 전지구적 기억문화의 일부가 되었다. 그러나 위안부 생존자의 경우 대개 자식을 남기지 못했고 피해 사실을 '수치스러운 이야기'로 여기고 가족, 친척, 공동체에 숨겨왔다는 차이점이 있다. 위안부 국가 등록이 개시된 이후에도 여성에게 강요된 정조 관념은 쉽사리 바뀌지 않아 등록 피해자 중에서는 등록 사실을 가족에게 숨기고 가명으로 증언하는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위안부에 관한 기억연구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증언만이 아니라 관계자들의 '증언 이후의 증언' 또한 제시되고 수집되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

가족의 기억을 넘어선 세대 간 기억의 전달을 위해 참조할 만한 기억연구로는 마리안 허쉬의 포스트기억(postmemory) 이론이 있다. 미국의 문학 연구자이자 페미니스트인 허쉬는 홀로코스트 생존자의 2세로 1949년에 루마니아서 출생했다. 『포스트기억 세대: 홀로코스트 이후의 글쓰기와 시각문화』에서 그녀는 "내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나는 내 기억보다 그들(부모)의 기억을 더 쉽게 떠올린다."[9]라고 밝힌 바 있다. 허쉬는 부모의 트라우마적 기억이 어떻게 자신의 어린 시절을 지배했고 생생한 그 자신의 기억이 되었는가를 자기 분석함으로써 포스트기억과 포스트기억 세대 개념을 이론화했다. 허쉬에 따르면 홀로코스트 생존자를 부모나 가족으로 둔 이른바 '홀로코스트의 아이들'이 생산한 작품에는 특유의 징후가 있다. 그들은 과거를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상상적 투자, 투사, 창조를 통해 '중개'하므로 생존자의 트라우마적 과거는 (그들의 관점으로) '현재화'된다.[10] 그러나 포스트기억이 가족의 기억과 이야기로만 저장되고 전달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아니라서 직접적 영향은 덜 받았으나 가족의 포스트기억(familial postmemory)을 매개한 관계자들도 정치적, 문화적 기억 구조를 재활성화하고 재구현함으로써 포스트기억 세대가 될 수 있다. 허쉬는 희생자와 그 가족이 소멸한 뒤에도 그들의 기억을 이어가고자 하는 관계자들의 포스트기억을 연대적 포스트기억(affiliative postmemory)으로 구분했다.[11]

바꾸어 말하면 연대적 포스트기억이란 상상적 투자, 투사, 창조를 통해 가족

9 Marianne Hirsch, ***The Generation of Postmemory: Writing and Visual Culture After the Holocaust***,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2, p.160.

10 ***ibid.***, p.5.

11 ***ibid.***, p.33.

적 주체가 되어 가족적 응시로 피해자-증인을 바라보고 그들의 트라우마적 기억과 고통을 자기 것으로 현재화하는 기억 작업이다. 위안부 피해자들은 자신들의 기억을 이어갈 자손을 많이 남기지 못했지만 다행히 우리에게는 반세기만의 침묵 끝에 그들이 증언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싸웠고 그들의 마지막 길을 돌보아왔던 활동가, 연구자, 예술가들의 연대적 포스트기억이 있다. 혈연이 아니라 기억으로 연결된 두 세대는 그동안 함께 위안부의 기억을 매개하고, 전달하고, 전지구적 기억문화로 확장해왔다. 이제 피해자들이 먼저 생을 마감한 뒤에 남은 관계자들은 다음 세대에게 위안부의 기억을 전달하기 위해 새로운 기억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포스트기억 세대가 기억의 상관물을 통해 위안부의 기억을 재생산한 텍스트 『흐르는 편지』, 「보드랍게」를 중심으로 2015년 위안부합의 이후 포스트기억 작업에 나타난 변화를 살펴보고, 그것이 불가시화된 증인, 전형을 벗어난 피해자, 셀 수 없는 피해자의 말해지지 않은 증언을 상상함으로써 어떻게 재현의 위계질서와 증언의 아포리아를 넘어서고자 하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불가시화된 증인으로서 '위안부'의 아기

김숨은 전작 「녹음기와 두 여자」(2016), 『한 명』(2016)에서부터 『듣기 시간』(2021)에 이르기까지 위안부 피해자의 침묵과 증언 불가능성을 소설로 재현해왔다. 특히 국가에 등록된 위안부가 모두 사망한 다가올 미래를 그린 『한 명』은 316개의 각주가 보여주듯 피해자들의 실제 증언을 엮어 창조한 허구로, 기존에 수집된 증언을 토대로 미등록 위안부라는 불가시화된 존재와 그들의 말해지지 않은 증언을 상상하여 제시한 작품이다. 불가능한 증언에 대한 전작의 문제의식을 이어간 『흐르는 편지』(2018)에서 이 작가는 위안부의 아기라는 그동안 역사에 등장하지 않았던,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증인의 잠재적 증언을 불러내었다.

『흐르는 편지』의 화자이자 주인공은 만주의 "낙원" 위안소에서 일본군의 아기를 임신한 조선인 소녀이다. "열다섯 살 먹도록 글자를 배우지 못해"[12] 이름

12 김숨, 『흐르는 편지』, 현대문학, 2018, 7-8쪽. 아래에서 인용할 경우 괄호 안에 쪽수만 씀.

도 쓸 줄 모르는 그녀는 삿쿠를 씻고 빨래하러 갈 때마다 개울 물에 손가락을 담그고 고향의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다. 읽히지도, 전해지지도 못할 편지의 내용은 대개 소녀가 뱃속에서 죽기를 바라다가도 한편으로는 살기를 바라는 일본군의 아기에 관한 것이다. "나는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 걸까. 나에게 편지를 쓰는 걸까"(289)라는 소녀의 자각처럼 "흐르는 편지"는 기실 그녀가 품고 있을 뿐 밖으로 내보내지 못한 증언이다. 그 점에서 태아와 편지는 '아직 전달되지 못한 증언'으로서 유비 관계를 이룬다. 위안소라는 '지옥'의 실재를 바깥으로 전달할 수 없는 소녀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증언 가능성은 바로 범죄의 증거인 동시에 자신의 일부인 아기다.

> 지난겨울 악순 언니가 낳은 아기는 일본 군인의 아기였다. 정월 초 금실 언니의 몸에 들어섰던 아기도, 훈춘 위안소에 있는 여자애가 가졌다는 아기도, 군자 언니의 몸에 들어섰던 아기들도, 애순 언니가 여덟 달 만에 낳은 죽은 아기도, 그리고 내 몸에서 자라고 있는 아기도. 일본 군인들은 그런데 자신들의 아기가 아니라고 한다.
>
> 나는 애순 언니가 낳았다던, 배 속에서부터 몸 반쪽이 까맣게 썩어 죽어 있었다던 아기를 안고 군부대를 찾아가는 상상을 한다. 들판을 지나고, 군부대 초소와 가시철망을 지나…… 노란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몰려든다. 가장 처음 눈이 마주친 군인에게 나는 말한다.
>
> *네 아기야!*[13] (183-184)

위안부와 일본군 사이에서 잉태된 아기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들에게 성노예제와 성폭력의 증거인 아기는 "가장 징그러운 종자"[14]에 불과했을까? 아니면 "내

13 『흐르는 편지』에서 소녀의 편지는 굵은 글씨로, 일본어는 이탤릭체로 구분되어 있다. 이 논문에서도 그 구분을 따라 인용했고 인용문이 길어 문장을 생략할 경우는 말줄임표(…)로 표시했다.

14 윤정모,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당대, 1997(초판, 1982), 37쪽. 위안부 운동이 시작되기 전에 쓴 이 소설에서 조선인 학도병 출신 아버지는 위안부였던 아내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일본군의 아이로 오해하고 이렇게 부른다.

아기”(245)로 수용되었을까? 이 불가시화된 존재에 대한 증언은 매우 희박하다. 『흐르는 편지』는 생존자들의 증언과 그들을 도왔던 관계자들의 ‘증언에 대한 증언’을 통해[15] 증거 없는 사실에 다가가고자 했다. 굶주림, 통증, 악취, 오물, 기생충, 성병, 마약, 낙태, 사산, 기형아, 몸과 정신을 훼손하는 무참한 폭력. 그 가운데에서 위안부 소녀는 **“아무도 내 아기를 죽일 수 없어요./나는 아기가 고통 없이 죽기를 바라요.”**(245-246) 라는 양가감정을 느끼며 끝까지 아기를 품는다. 이토록 고통스러운 포스트세대의 상상의 근원에는 한 장의 사진이 있다.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 보존된 ‘만삭의 위안부’ 사진

위안부 피해자의 대중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친 위 사진은 오랫동안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태평양전쟁’ 자료로 보관되어 있다가 1991년 김학순의 증언이 불러온 세계적 파장 속에서 재발견되었다. 이 사진은 ‘만삭의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국내외 연구와 언론에 인용되며 위안부 이미지의 전형이 되었다.[16] 가해의 증거를 검열했기 때문에 일본군이 남긴 위안부 사진에는 대개 증거

15 “『한 명』을 쓰면서 찾아 읽은 증언들과 자료들이 그 소설을 펴낸 지 2년여가 지나서야 겨우 내 안에서 체화되었다. (…) 이 소설 역시 일본군‘위안부’ 피해 생존자들의 증언에 많은 빚을 지고 있음을 밝힌다. 온전히 기억에만 의존해야 했던 그분들의 증언을 수십 년 전부터 도왔던 분들께도.” 김숨, 「작가의 말」, 『흐르는 편지』, 앞의 책, 308쪽.

16 예를 들어 1992년 1월 16일자 『경향신문』 23면은 “그들은 짐승이었다”라는 헤드라인 아

로 사용되기 불충분한 이미지만 제시되어 있다. 이 사진처럼 오늘날 대중적으로 기억되는 위안부 이미지들은 대부분 연합군이 해방 전후에 촬영한 것이다.[17]

왼쪽 모퉁이의 미 육군통신부대(U.S. Army Signal Corps) 마크는 이 사진이 일본군의 전쟁범죄에 대한 시각적 증거 확보를 목적으로 촬영되었음을 말해준다. 당시 미군이 작성한 사진 설명(caption)은 조선인 위안부들을 "중국 제8군에 포로로 잡힌 네 명의 일본 여자들"[18]로 잘못 기록하고 있다. 가해자의 시각은 물론이고 공모자 혹은 방관자의 시각으로 재현된 피해자 이미지도 불충분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 사진은 잘못 설명되고, 잘못 분류되고, 잘못 제시되어왔다. 손택에 따르면 사진에 찍힌 사건을 사건으로 만들어주는 결정적 요소는 이미지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이며, 사진이 증거로서 도덕적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정치의식이 존재해야 한다.[19] 이 사진도 오랫동안 잊힌 자료였다가 위안부 전후 배상 운동 이후에야 '증거'가 되었고 2000년에 사진 속 만삭의 위안부 박영심이 나타나 증언함으로써 '사건'이 되었다.

사진 속 사건을 밝힌 증언, 조사, 연구에 따르면 이 여성들이 미군 통신병의 카메라에 포착된 사정은 다음과 같다.[20] 박영심 일행은 미중 연합군이 일본군을

래 이 사진을 중앙에 배치하고 왼쪽에 대전(원문에는 대천으로 잘못 씀)의 노청자, 부산의 이귀분(원문에는 이옥분으로 잘못 씀)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인터뷰 「일제의 무차별 소녀사냥… 이렇게 짓밟혔다」를 실었다. 이와 같은 배치는 이 사진이 생존자의 증언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제시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짐승", "소녀사냥" 등의 자극적인 문구와 피해자의 출신지와 심지어 성명조차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보도되었다는 사실은 진상 규명과 피해자 보호에 무관심한 당시 언론의 태도를 보여준다.

17 이 사진을 포함하여 NARA에 소장된 위안부 사진 11장의 제작 배경 분석은 Sung Hyun Kang, "The U.S. Army Photography and the "Seen Side" and "Blind Sid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e Still Pictures and Motion Pictures of the Korean Comfort Girls in Myitkyina, Sungshan, and Tengchung," ***Korea Journal*** Vol. 59 No. 2, 2019, pp.144-176 및 강성현, 『탈진실의 시대, 역사부정을 묻는다: '반일 종족주의' 현상 비판』, 푸른역사, 2020, 제3부 「자료와 증언, 왜곡하거나 찬탈하지 않고 맥락을 보다」, 134-215쪽 참조.

18 ***ibid.***, p. 160.

19 수전 손택, 이재원 역, 『사진에 관하여』, 이후, 2013(초판 2005), 41쪽.

20 박영심의 구술 증언, 그녀의 인터뷰와 일본군의 증언을 대조하여 발견된 사실, 미군 문서를 통해 이 사진의 제작 배경을 파헤친 연구 등을 참조해 재구성했다. 이토 다카시, 이은 역,

전멸시킨 쑹산전투(1944.6.4~9.7) 말엽에 가까스로 일본군 진지를 탈출했다. 그녀들의 맨발이 목숨을 건 도주의 긴박성을 보여준다. 원래 다섯 명이었으나 한 명은 중국군이 접근하자 스스로 강에 뛰어들어 죽었다. 일본군은 연합군의 포로가 되면 고문(그리고 강간)을 당할 것이라고 위안부들을 세뇌했기 때문에 공포에 휩싸여 포로가 되느니 차라리 자살을 택한 것이 아닐까. 그들은 남의 밭에서 옥수수를 따 먹으며 허기를 달래던 중에 중국인 농부 리정자우에게 발견되었다. 그는 공포로 부들부들 떨고 있는 여자들을 집으로 데리고 가 먹을 것을 준 뒤 중국군 병사에게 연락했다.

중국군에 포획된 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서는 사진의 프레임 밖을 상상해야 한다. 사진의 구도는 카메라 앞에 피사체를 배치하고 포즈를 취하라고 지시한 존재를 암시한다. 미군 카메라맨은 경사진 배경에 맞춰 다섯 명을 한꺼번에 프레임에 담기 위해 중국군과 첫 번째 위안부를 앉혔을 것이다. 그의 지시에 호응해 포즈를 취한 중국군은 오른손에 총을 세워 쥐고 마치 기념사진인양 치아를 드러내 보이며 웃고 있다. 승리를 얻은 중국군과 배후의 미군. 그들의 위치가 미중 연합군의 속성을 드러낸다. 총과 카메라는 발기한 남성 성기의 은유이다. 총이 총알을 넣고 겨냥하고 쏘는(shooting) 것처럼 카메라는 필름을 넣고 피사체를 겨냥하여, 사진을 박는다(shooting).[21] 총-카메라로 포위된 맨발의 위안부들은 공포로 완전히 얼어붙어 있거나(두 번째 여성), 애써 시선을 돌리거나(첫 번째, 세 번째 여성), 완전히 소진된 얼굴을 하고 있다(박영심). 자신의 배 위로 시선을 떨어뜨리고 있는 박영심은 하혈 중이었다. 이 여성들은 미군의 심문으로 조선인임이 밝혀졌으나 포로로 간주되어 일본군 패잔병들과 함께 곤명 포로수용소에 갇혔다. 그곳의 중국인 의사가 수술을 해주었으나 박영심의 아기는 이미 죽어 있었다. 7개월 뒤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간 박영심은 훗날 과거를

『기억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된 남한과 북한의 여성들』, 알마, 2017, 292-296쪽; 박정애, 『함께 쓰는 역사 일본군'위안부'』, 동북아역사재단, 2020, 49-57쪽; 강성현, 앞의 책, 189-215쪽.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연구팀, 『끌려가다, 버려지다, 우리 앞에 서다 1』, 푸른역사, 2018, 84쪽 및 100쪽.

21 손택, 앞의 책, 33쪽. 또한 1882년 프랑스의 의사이자 생물학자 에티엔-쥘 마레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연속사진카메라(Chronophotographic gun)가 총의 형태였음을 언급해 둔다.

숨기고 결혼했지만 다시는 아기를 낳지 못했다.

2000년 5월 여성국제전범법정을 준비하던 일본 활동가들은 평양의 한 호텔에서 박영심을 만나 위의 사진을 보여주었다. 그 사진을 들여다본 그녀는 손가락으로 정확히 사진 속 만삭의 위안부를 가리켰다.[22] 같은 해 12월 여성국제전범법정에 증언자로 참가하기 위해 일본 도쿄로 간 박영심은 공황상태에 빠져 법정에 설 수 없어 녹음으로 증언을 대체했다. 숙소에 걸려 있던 유카타를 보고 위안소에서 입었던 옷을 연상했고 트라우마에 잠식된 것이다. 2003년 11월에 활동가들과 쑹산의 위안소 터를 방문했을 때도 트라우마는 반복되었다. 박영심의 육체는 위안소를 탈출했지만 영혼은 여전히 위안소에 갇혀 있었고 트라우마는 평생 계속되었다.

『흐르는 편지』는 강제로 중절 수술을 받은 위안부, 사산된 아기를 낳은 위안부, 낳은 아기를 빼앗긴 위안부의 고통을 재현하며 수많은 박영심들의 기억을 이어간다. 동시에 일본군의 전시 성범죄의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인 아기를 상기시키며 우리가 피해갔던 어떤 '진실'을 기억하라고 요청한다. 피해자들이 커밍아웃하기 이전의 위안부 서사에서 위안부의 아기는 주로 민족의 틀 안에서 상상되었다. 조선인 위안부와 조선인 학도병의 아기(『여명의 눈동자』나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의 경우처럼)는 민족 말살의 전쟁범죄에서 살아남은 피해자-민족의 알레고리였으나 이 알레고리는 다른 이야기가 재현될 가능성을 현저히 제한했다. 이에 비해 『흐르는 편지』는 기존에 선호되어온 민족주의 서사가 비추지 못한 다른 진실을 제시함으로써 피해자 재현의 위계질서를 뒤흔든다.

그래서 소리 내지 않고 몰래 빌었어요.
죽어가는 잉어처럼 입만 벙긋벙긋 벌려 빌었어요.
아기가 들을까봐서요.(64)
어머니, 아기에게 눈동자가 생긴 것 같아요.
새벽에 마당에 나와 장교가 타고 온 말을 바라보는데, 내가 아니라 아기

22 이날 촬영된 박영심의 사진은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연구팀, 앞의 책, 73쪽에 수록되어 있다.

가 바라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
어머니, 나는 아기에게 말하고 또 말해요.
아가야 제발 눈을 감아!"(89-90)

인용문처럼 위안부 소녀는 자기가 본 것이나 들은 것을 뱃속 아기도 보고 듣는다고 느끼고 군인이 다녀갈 때마다 아기에게 눈을 감으라고 애원하면서 아기가 흘릴 눈물을 상상한다. 그와 같은 어머니/아기의 동일시를 통해 일본군의 아기는 "네 아기"에서 "내 아기"가 되고 "가장 징그러운 종자"에서 잠재적 증인으로 재현된다. 그 때문에 위안부의 아기는 때로 가해자의 속죄를 불러내기도 했다. 패전 이후 중국의 전범관리소에 포로로 억류되었던 일본군 고지마 다카오(小島隆男)는 1956년 포로교육의 일환으로 부인생산교양소(婦人生産教養所)를 방문했다. 그는 그곳에서 매독에 걸려 새파란 얼굴로 누워 있는 중국인 위안부 피해자를 목격했다. 그녀의 옆에는 위안부의 자식인 어린아이가 있었다. 일본으로 귀환 이후 뒤늦게 가정을 이룬 그는 자기도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점차 일본군이 위안부 피해자 여성들에게 저지른 죄의 무게를 알게 되었다고 고백했다.[23] 위안부의 아기와 자신의 아기를 겹쳐봄으로써 고지마는 전쟁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 위안부만이 아니라 군인도 전쟁의 피해자였다는 "군사적 환원주의"[24]를 벗어나 참회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겹쳐보기는 『흐르는 편지』에도 나타나는데 이 경우 일본군과 아기를 겹쳐보는 거울상으로 나타난다.

총탄을 맞고 죽어가는 군인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어요. 비명을 지르며, 군가를 부르며, 욕을 하며, 엄마를 찾으며 죽어가는 군인들이 지난밤 줄을 지어 내 몸에 다녀간 군인들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서로 먼저 내 몸에 다녀가려고 애들처럼 시시덕거리며 가위바위보를 하던 군인들

23 西野留美子, 앞의 책, 152-154쪽.

24 여성에 대한 전시 성폭력의 근본 책임이 군인 개인보다 군국주의와 전쟁 그 자체에 있으며 전장의 가혹한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결과물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군사적 환원주의"는 평화 시에도 있었던 성폭력과 전시 성폭력의 연속성을 보이지 않게 만든다. 캐롤라인 노마, 앞의 책, 350쪽 참조.

이라는 게 (…)

한쪽 팔이 어디로 날아가버리고 없는 군인이 엄마를 찾았어요.

“엄마, 엄마……!”

“아가야…….”

“엄마?”

“아아, 아가야…….”

“엄마, 엄마!”

군인의 두 눈은 나를 보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아무 데도 가지마……!”

“안 가…….”

조선말이지만 군인이 알아듣는 것 같았어요.

“엄마, 나 두고 가면 안 돼……!”

“……아무 데도 안 가.”

“엄마, 엄마……!”

숨을 거두어 더는 엄마를 부르지 않는데도 군인 곁을 떠나지 못했어요. 내가 가버릴까봐 끝까지 뜨고 있던 군인의 눈을 감겨주지 못했어요. 개울에서 곰팡이 핀 오징어를 우리에게 주며 환하게 웃던 군인이었어요. (132-133)

위안부 소녀가 일본 군인에게 연민을 느끼는 위의 장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여러 독자를 “당황스럽게”[25] 한 것 같다. 가해자를 인간화해버리면 피해자의 고통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고 죽어가는 일본군에게 어머니를 대리하는 소녀의 심리를 “극한 상황”에 놓인 “위안부가 느꼈을 다중적 내적 분열의 암시”[26]로 해석한다면 인용한 장면은 임신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궁지에 몰린 위안부의 착란에 지나지 않게 된다. 전쟁이라는 가혹한 환경과 이로 인한 심리적 분열이라는 해석은 “군사적 환원주의”에 근거를 제공할 위험

25 박수현, 「작품해설: 비가와 찬가」, 김숨, 앞의 책, 299쪽.

26 위의 글, 301쪽.

도 있다. 나는 일본군과 아기의 겹쳐보기가 가해자를 인간화하는 것이 아니라 유아화(infantilization)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다음과 같은 묘사를 통해 위안부에 의해 전유된 유아화는 식민지와 제국, 피해자-위안부와 가해자-일본군의 관계를 상상적 차원에서 역전시킨다.

> 엉덩이 아래까지 군복 바지를 끌어내리고 삿쿠를 끼우려 애쓰는 군인의 얼굴이 너무 앳되서 나는 깜짝 놀란다. 아버지나 삼촌의 군복을 몰래 훔쳐 입고 길에 서 있다 전쟁터로 끌려온 것 같다. 셀 수 없이 많은 군인을 받았지만 너무 어려 얼굴이 아기 얼굴 같은 군인은 처음이다.
> "아가야…… 너는 몇 살이니? 열세 살? 열네 살? 나는 열다섯 살……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오지 그랬니…… 아기를 어떻게 전쟁터에 보냈을까. 아가야, 꼭 살아서 엄마가 기다리는 고향 집에 돌아가렴, 꼭 살아서……."
> *"조선말로 하면 욕인 줄 모를 줄 알아?"*
> 군인이 내 뺨을 찰싹찰싹 갈긴다. 아직 아이라 손가락들이 자라고 있는 손으로. (169-170)

유아화는 장애인, 여성, 흑인, 피식민자를 어린이로 은유하여 대상을 폄하하고 비이성적이고 무지한 존재로 만듦으로써 지배를 정당화한다. 식민지배의 경우 식민자는 피식민자를 열등한 '어린이 인종'으로 노예화함으로써 그들의 자율성과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제국의 통치를 정당화한다.[27] 오늘날 일본 우익의 역사 수정주의에서도 이러한 사고 구조를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위안부와 난징대학살을 날조라고 주장하는 일본회의 의원연맹 도쿄 본부장 가세 히데아키(加瀬英明)는 "한국과 일본이 위안부 문제에 관해 서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라는 질문에 중국이 붕괴하면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친일적인 나라가 될 것이라며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귀여운 나라로 좀 버릇없는 꼬마가

27 어린이라는 은유를 동원한 정치적 작업, 특히 식민지주의와 백인 우월주의를 정당화하는 유아화와 어린이라는 은유에 관해서는 China Mills and Brenda A. Lefrançois, "Child As Metaphor: Colonialism, Psy-Governance, and Epistemicide," ***World Futures.*** Vol. 74, Issue 7-8 (2018) 참조.

시끄럽게 구는 것 같이 귀엽지 않습니까?"라고 발언했다.[28]

『흐르는 편지』는 그와 같은 제국적 응시를 전유하여 일본군을 유아화함으로써 '제국/식민지'-'일본군/위안부'라는 고착화된 젠더 구조를 해체한다. 아기를 가진, 그러므로 어른이 된 위안부 소녀는 앳된 얼굴, 어린 나이, 아직 자라는 손가락을 가진 가해자-소년병을 "엄마 젖이나 더 먹고" 와야 할 남성성이 결핍되어 있고 성적으로 무능해 위협이 되지 않는 존재로 유아화한다. 이런 전유는 가해자를 인간화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희석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미성년자조차 전쟁에 끌어들인("아기를 어떻게 전쟁터에 보냈을까") 비인도적인 일제의 전쟁 제도와 젠더 폭력을 고발할 수 있다.

고지마의 증언과 『흐르는 편지』의 상상은 정반대의 위치에 있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아기를 매개로 서로를 겹쳐보게 함으로써 어린 세대가 전쟁이라는 지옥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가해자의 악행과 피해자의 고통을 기억해야 한다는 같은 결론에 도달한다. "어린이의 모습은 어른의 구성물이며 어른의 환상, 공포, 욕망의 장소"[29]라고 할 때, 1990년대 이후에 생산된 이들 증언/소설 텍스트의 겹쳐보기에는 어린이는 차별 없이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할 존재라고 규정한 전후 세계인권체제의 보편적 인권 개념이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30] 마찬가지로 『모래시계가 된 할머니』(2010), 『수요일의 눈물』(2012) 등 아동용 위안부 동화는 아동 학대, 아동 성범죄라는 현재의 문제를 위안부 문제와 연결함으로써 미성년자를 전쟁에 동원한 반인륜적인 전쟁과 현재의 폭력을 동시에 고발한다. 즉, 포스트기억 세대는 위안부에게 빚진 말과 이미지를 다음 세대에 전달할 뿐만 아니

28 미키 데자키, 「주전장」(2018) 참조. 일본회의는 '일본의 전도와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의원 모임'의 약칭으로 국회의원, 학자, 일본유족회, 기업가 등으로 구성된 일본 최대의 보수단체이다. 일본회의는 1996년 설립된 '새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과 제휴해 역사 수정주의 교과서를 제작했고 일본의 침략전쟁을 비판하는 연구에 반대하는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29 Marianne Hirsch, ***op. cit.***, p.162.

30 제2차 세계대전 중 인류의 야만적인 범죄에 대한 성찰을 통해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제25조 2항은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적서에 관계없이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누린다."는 모성과 아동 보호를 보편적 권리로 규정하였다.

라 그들의 트라우마적 기억을 현재화함으로써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동시대의 문제를 상기시키며 현실에 비판적으로 개입하고자 한다.

2015년 이후의 포스트기억 예술은 불가시화된 위안부의 후손을 상상의 법정으로 불러내어 또 다른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등장시키고 있다. 『흐르는 편지』와 같은 해에 발표된 영화 「허스토리」(2018)에는 위안부였던 어머니에게서 감염되어 뇌매독으로 고통받아온 아들이 등장한다. 그의 어머니는 관부재판의 원고 중 한 명인데, 일본의 법정에서 검사 측은 아들과 어머니의 유전자가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내 그녀의 증언이 거짓임을 증명하려 한다. 우여곡절 끝에 그녀가 위안소를 함께 탈출한 친구의 아기를 길러왔다는 사실이 가까스로 밝혀지고, 아들은 말하기 위해 법정에 선 어머니와 말할 수 없었던 죽은 어머니 모두의 증인이 된다. 영화 속의 상상과 달리 현실적으로는 위안부 연구가 본격화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그들의 후손에 대한 단서는 매우 드물다.[31]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남지 못했고,[32] 피해 사실을 숨겨온 어머니로부터 기억을 물려받지 못했고, 따라서 증언자로 역사의 무대에 서지도 못했기 때문이다.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산, 불임, 기형아 출산 등을 초래한 일본군의 성범죄는 후손에 의한 마지막 증언 가능

31 버마와 싱가포르 위안소에서 관리인으로 일한 조선인 박 씨의 일기에는 병원에서 유산한 위안부(1943년 7월 16일), 임신으로 휴업한 위안부(1944년 7월 4일), 병원에서 남아를 출산한 위안부(1944년 9월 5일)에 관한 기록이 있다. 안병직 번역·해제,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이숲, 2013. 그리고 조선인 위안부가 출산한 아기에 대한 기록도 있다. 전쟁 말엽에 폭격으로 죽은 조선인 위안부들 곁에 기저귀를 찬 아기가 발견되었다는 국민당 기관지 『中央日報』(1944년 10월 16일)의 신문기사와 해방 이후 미군 귀환선에 오른 조선인 위안부 중에 아기를 업은 여성의 사진이 남아 있다. 박정애, 앞의 책, 42쪽 및 48쪽 참조.

32 단편적이나마 살아남지 못한 위안부의 아기에 대한 증언도 존재한다. 북한의 위안부 리경생과 유선옥의 배에는 태아를 자궁 채로 적출한 긴 흉터가 남아 있다. 북한 최초의 증언자 리경생은 군의관이 태아를 일본도로 잘게 조각내어 강에 버렸다고 증언했다. 이토 다카시, 앞의 책, 277-280쪽 및 299-300쪽. 중국 흑룡강성의 자동차부대 군의관이었던 야마나카 미쓰요시(山中光義)는 자신이 조선인 위안부의 중절 수술에 입회한 사실을 증언했다. 또한 해군 소위였던 오자와 가즈히코(小沢一彦)는 버마 전선에서 "천황의 군대의 군의가 조센삐의 중절 따위"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산하게 된 위안부가 아기와 함께 행방불명된 사건에 대해 증언했다. 西野留美子, 『従軍慰安婦—元兵士たちの証言』, 明石書店, 1992, 165-166쪽.

성조차 말살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제노사이드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위안부의 후손을 찾고 그들로부터 증언을 수집하고 기록하는 일은 아직 본격적으로 시도된 바가 없지만 포스트기억 세대의 기억 작업 중 하나가 우연히 그 일을 해냈다.

3 증인에 대한 증인으로서 관계자의 기억

변영주 감독의 「낮은 목소리」 3부작(1995, 1997, 1999)은 위안부 영화의 이정표 같은 작품이다. 주지하다시피 이 페미니스트 감독은 20대에 제주도의 기생관광을 고발한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1993)을 연출하던 중 어머니가 위안부라고 고백한 매춘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 일을 계기로 말할 수 없었던 위안부 피해자들의 중얼거림(murmuring)[33]을 기록하고자 「낮은 목소리」 연작을 만들게 되었다. 3부작 중에서 「숨결」이라는 제목이 붙은 마지막 영화에는 한 위안부 피해자의 인터뷰에 동석한 딸, 제2의 피해자인 그녀의 '목소리 없는' 증언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 이날 우연히 이루어진 딸의 증언은 영화 촬영에 참여한 스태프들에게 목격되어 관계자들의 포스트기억이 성립하는 순간을 기록한 사례로 남게 되었다.

열네 살에 하얼빈으로 끌려갔던 피해자 김윤심은 위안소에서 매독에 걸렸고 10여 년 뒤에 청각장애로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딸 선예숙을 낳았다. 병원에서 자신의 병으로 딸이 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과거를 숨겨온 김윤심은 남편에게 "그 일"이 알려질까 봐 두려워 딸을 데리고 가출했다. 김윤심은 위안부 등록 이후 자신의 기억을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증언록 「전일본군 위안부 김윤심 할머니 수기」는 1998년 제8회 전태일 문학상을 수상했다. 그 수기를 바탕으로 책을 출판하고 다른 피해자들과 증언과 시위도 했지만 김윤심은 가족이나 이웃이 알게 되는 것을 꺼려서 자신의 책을 주지 않았다. "어머님이 쓰신 책 왜 안 읽어 보셨어요?" "따님, 읽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라는 감독의 질문

33 「낮은 목소리」 1부의 영어 제목이기도 하다. murmuring은 연속적이고 낮은 불분명한 중얼거림을 의미한다. 피해자들은 불분명하고 낮은 목소리로 계속 말해왔으나 그동안 우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은유한 제목이다.

에 김윤심은 “(딸이)책에 엄마 과거 그렇게 했다는 거 써졌는가조차 몰라.”라고 말했다. 그러나 선예숙은 어머니가 미국에 증언하러 간 사이 어머니의 책을 읽었고 TV도 보았노라고 수화로 답했다. 영화의 프레임 밖에서 딸의 수화를 통역하는 여성의 속삭임을 통해 관객은 딸이 어머니의 과거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듣는다. 어머니는 “왜 말 안 했어.”라며 딸의 볼을 톡톡 건드린다. 딸은 대답 대신 미소를 짓는데, 급히 딸의 얼굴로 줌인한 카메라가 현장의 떨림을 고스란히 전달한다. 과거를 숨겨왔던 어머니와 그런 어머니가 마음 아파할까 봐 모른 척하고 있었던 딸은 이내 서로를 마주보고 함께 미소지었다. 그리고 감독, 수화 통역자, 카메라맨, 스태프, 그날 그 자리에 있었던 모두가 그 아름다운 장면의 증인이 되었다.

다음 신에서 7분간 이어지는 변영주와 김윤심의 대화는 포스트기억 세대가 위안부 피해자의 트라우마적 경험을 어떻게 자기 세대의 경험으로 현재화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프레임 바깥에서 보이스오버로 피해자와 인터뷰하는 형식을 취한 변영주는 “촬영팀은 풍경의 일부가 되어야 한다”[34]는 다큐멘터리의 고정관념을 뛰어넘어 페미니스트로서 영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낮은 목소리」 3부작을 통해 8년간 피해자들을 만나온 변영주는 김윤심에게 왜 한국 사회는 가해자가 아니라 성폭행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끼도록 만드는가를 묻는다. 김윤심은 증언 이후에도 떨쳐내기 힘든 자신의 수치심에 관해 털어놓는다. 그녀는 증언 활동을 하면서 왜 지나간 일을 들추어내느냐고 했던 국회의원들의 발언에 깊이 상처받았다. 위안소에서 돌아온 뒤 아버지 때문에 대문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던 소녀는 할머니가 되어서 일본대사관 앞에서 수요 시위를 하면서도 행인들이 자신을 백안시하는 것 같다고 느꼈다.

이 영화에서 김윤심은 가부장제의 순결 이데올로기 아래 위안부 생존자들이 겪은 폭력의 연쇄를 증언한다. 그들은 일제의 전시 성폭력만이 아니라 해방 이후의 제도적 폭력, 사회적 폭력, 가정 폭력에서 살아남은 생존자이다. 위안소에 갇혔던 그들은 고향에 돌아와서는 ‘더러운’ 소문에 갇혔고 가족의 냉대에 갇혔다.

34 기이 고티에, 김원중·이호은 역, 『다큐멘터리, 또 하나의 영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초판 2006), 195쪽.

가부장제 순결 이데올로기 아래서는 '결혼할 수 없는 몸'이라 더러는 유곽으로 갔고, 더러는 미군 위안부가 되었고,[35] 결혼한 경우라도 자식을 못 낳거나 위안부였다는 과거로 인해 남편의 폭력에 시달렸다. 그러나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역사전쟁 속에서 그들이 해방 이후에 겪은 중첩된 폭력은 일제강점기에 겪은 폭력에 비해 부수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왔다. 위안부 등록과 정부 지원금으로 운동이 제도화되면서 피해자들의 말할 수 없던 이야기는 국가의 '인정'을 받은 증언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그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은 목소리이다. 등록되지 않은 피해자만 말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등록되었더라도 국민국가의 공식 기억을 초과하는 기억이나 위안부 동원에 대한 증언 이외의 삶의 다른 이야기들은 말해도 들리지 않았다. 위안부 생존자 김복동의 또 다른 전쟁 기억처럼.

> 전쟁터에서 살아 돌아왔더니 전쟁이 났어.
> 피난민들이 우리 마을까지 흘러들었어(…).
> 경찰들이 마을들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트럭에 실었어. 논에서 피 뽑던 사람을, 밭에서 쟁기질하던 사람을, 틀판에서 소 꼴 베던 사람을, 산에서 나무하던 사람을…….
> 사람들 양손을 새끼줄로 묶고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어.
> 산에서 새벽부터 저녁까지 총소리가 들렸어.
> 벌건 대낮에도 경찰들이 사람들을 트럭에 한가득 싣고 어딘가로 떠났어.
> 양산읍에서 부산 구포읍으로 넘어가는 고개가 있어. 구포읍 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조그만 마을이 나와. 경찰들이 그 마을 남자들을 전부 끌고 갔어. 그날 그 마을 여자들은 다 과부가 되었어. 그 마을에서는 지금도 한날 제사를 지내. 남자들이 한날 죽어서(…).
> 사배재에서도 경찰들이 구덩이를 파놓고 사람들을 총으로 쏴 죽였어.

35 해방 이후 고향으로 돌아간 박연이는 가족의 냉대로 집을 나와 1948년부터 부산에서 미군 위안부 생활을 했다. 평택 기지촌으로 들어간 그녀는 주한 미군과의 사이에서 흑인 혼혈아를 낳았고 그를 따라 제주도 기지로 갔다가 버림받았다. 이후 아이를 데리고 마산, 파주, 군부대가 있는 경기도 오지마을을 전전했다.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 1997, 137-140쪽.

부산에서도 사람을 많이 실어다 죽였어.
나도 사람들이 트럭에 실려 가는 걸 봤어. 젊은 사람들이었어. 여자도 있었어.[36]

1992년에 피해 사실을 공개한 초기 증언자 중 한 명인 김복동은 1993년 UN 세계인권대회(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를 시작으로 전 세계를 돌며 평생 증언 활동을 이어나간 인권운동가이다. 한국전쟁과 관련된 위의 일화는 최초의 증언집[37]과 사후(死後)에 제작되어 그녀를 '위안부 피해자-인권 운동가'의 전형으로 만든 영화 「김복동」(2019)을 포함해 기존 증언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았던 내용이다. 김숨은 "증언 활동을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오신 할머니께서 지금껏 들려주지 않으셨던 이야기를 소설이라는 그릇에 담아보자"[38]라는 생각으로 병상의 김복동을 수차례 인터뷰했다고 한다. 출판 5개월 뒤 김복동이 암으로 사망함으로써 '증언-소설' 『숭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는 그녀의 마지막 기억 작업이 되었다. 죽어감에 대한 의식이 청자에 대한 의식을 압도한 자리에서 그녀는 남락고개와 사배재에서 벌어진 학살[39]을 떠올렸다.

기존의 채증 작업이 피해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드러내기 위해 지식인-청자의 개입을 삼간 데 비해 이 증언-소설은 문체에서 드러나듯 기억하는 주체와 기록하는 주체의 합일을 통해 위안부의 목소리를 함께 재현하고 있다. 오랜 증언 활동으로 잘 알려진 김복동의 생애는 "소설이라는 그릇" 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로 변주된다. 변영주가 김윤심과 함께 위안부 문제를 가부장제 순결 이데올로기와 연결했듯 김숨과 김복동의 함께 쓰기는 2차대전과 한국전쟁을 연결한다. 이

36 김숨, 『일본군'위안부' 김복동 증언집: 숭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현대문학, 2018, 139-141쪽.

37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앞의 책.

38 김숨, 『일본군'위안부' 김복동 증언집: 숭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작가의 말」, 221-222쪽.

39 1950년 8월 양산경찰서 소속 경찰과 국군 정보국 경남지구 CIC 대원이 국민보도연맹원 등 700여 명의 민간인을 예비검속이라는 명분으로 살해한 사건. 제1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조사하여 2009년 진실규명을 결정한 사건으로 공식적으로는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사건'으로 불린다.

른바 ‘위안부’와 이른바 ‘빨갱이’는 전시 국가폭력의 피해자이면서 또 다른 전쟁(냉전)으로 인해 오랫동안 침묵을 강요당해온 서발턴이다. 이처럼 동시대와의 연결성을 추구하는 관계자들의 포스트기억은 위안부 운동을 일본에 대한 진상 규명과 전후 배상 요구에만 머무르지 않는 초국적 여성운동으로 성장시켰다. 이제 위안부 운동의 포스트 냉전/식민주의적 실천은 반전 평화연대를 촉구하며 서발턴 피해자들의 다른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새로운 청중을 불러내고 있다.

박문칠 감독의 다큐멘터리 「보드랍게」(2022)는 피해자를 둘러싼 통념을 뚫고 나온 한 여성을 통해 위안부 재현과 기억 정치에 나타난 그와 같은 변화를 잘 보여주었다. 영화의 오프닝에서 카메라가 누군가 펼쳐 준 노트에 한 자 한 자 힘겹게 김순악이라고 써 내려가는 노인의 손을 비추는 동안 여성들의 목소리가 겹쳐 들린다. “김순악, 김순옥, 왈패, 사다코, 데루코, 요시코, 마츠다케, 위안부, 기생, 마마상, 식모, 엄마, 할매, 미친개, 술쟁이, 개잡년, 깡패 할매 … 순악 씨.” 그들이 부른 이 열여덟 개의 이름은 「보드랍게」가 위안부 피해자로서만이 아니라 인간 김순악의 생애를 페미니즘의 방식으로 다룰 것을 예고한다. 영화가 전개됨에 따라 그들의 정체가 드러난다. 김순악을 찾아내 증언을 청취·정리했으며 지근거리에서 그녀를 보살펴온 대구의 ‘정신대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 활동가들, 김순악에게 압화를 가르친 원예치료사, 성폭력 피해자에서 미투 활동가 된 여성들이 바로 이 다성적 목소리의 주인공들이다. 그들의 인터뷰, 증언록 낭독, 애니메이션[40], 희움일본군‘위안부’역사관의 압화 체험이 교차되며 “강퍅한” 김순악의 일생이 그녀의 기억을 이어가는 여성들의 목소리로 “보드랍게” 재현된다.

김순악의 사후 10년 뒤에 제작된 「보드랍게」는 ‘소녀’의 피해와 ‘할머니’의 증언에 초점을 맞추어왔던 기존 위안부 영화의 클리셰를 벗어나 위안부의 다른 이야기를 보여준다. 위안부들은 해방 이후 어디로 사라졌는가? 소녀와 할머니 사이의 삶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피해 사실 공개 이후 그들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김순악을 만나본 적이 없는 포스트세대 감독은 관계자들을 만나 그들의 기억을 더듬어가며 그 질문에 답하고자 한다. 김순악의 생애가 그러했듯 전

40 「보드랍게」는 김순악의 출생부터 위안소 생활에 이르기까지 증언 외에는 자료가 없어 물질적 재현이 어려운 과거를 흑백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했다.

쟁이 끝난 후 위안부의 삶은 또 다른 전쟁의 연속이었고, 과거의 폭력과 트라우마가 내내 삶의 경로를 지배했으며, 커밍아웃과 증언 이후에도 여전히 고통스러웠노라고.

경북 경산의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학교 문턱을 넘은 적이 없는 김순악은 16세(1944)에 대구의 실 푸는 공장에 취직시켜 준다는 말에 속아 만주의 한 위안소로 끌려갔다. 갖은 고초 끝에 해방 후 서울로 귀환한 그녀는 소문이 두려워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이후 서울 유곽에서 기생, 군산과 여수에서 술집 작부, 동두천에서 마마상으로 전전하다 두 아들의 어머니가 되었다. 여순사건 당시 기마대 순경과의 사이에서 낳은 사생아와 기지촌에서 미군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혈아를 홀로 키웠다. 기지촌을 나와 15년 식모살이 끝에 글을 몰라 쫓겨났다. 어머니에게 무관심하거나 왜 낳았냐고 원망하는 아들들에게도 의지할 수 없어 홀로 고향에 돌아왔다. 생활보호대상자로 살던 임대 아파트에 훈 할머니[41]가 이사 온 뒤, 자신이 위안부라 불리는 사람들과 같은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활동가들의 도움으로 김순악은 2000년 11월에 위안부 등록을 했다. 지원금으로 생활의 안정을 찾고, 압화를 배우고, 증언을 통해 다양한 정치·사회 활동에 참여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트라우마를 서서히 치유해나갔다.[42]

그럼에도 순악 씨에게는 여전히 말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었다. 김순악의 평전을 읽고 「보드랍게」를 구상한 박문칠 감독은 위안부 '할머니'가 피해자-활동가로만 재현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43] 이미 사망한 김순악의 삶을 재현하기 위해 이 영화는 그녀와 기억으로 이어져 있는 포스트 세대 활동가들의 회고를 따라가

41 캄보디아에서 1996년 발견된 위안부 피해자. 캄보디아 오지에 남겨져 한국말을 잊고 살다가 1997년 언론 보도로 국내에 알려지게 되어 1998년 영구 귀국했다. 그러나 말이 통하지 않아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넉 달 만에 다시 캄보디아에 남아 있는 가족에게로 돌아갔다.

42 김순악의 일대기는 김선님,『일본군'위안부' 김순악: 내 속은 아무도 모른다카이』, 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편, 도서출판 일일사, 2008를 참조해 요약했다.

43 "전시 성폭력이 전후 성매매로, 그리고 기지촌 생활로 이어졌던 현실은 그동안 '위안부' 담론에서 누락되거나 간과된 고리처럼 느껴졌다. 어쩌면 민감하거나 불편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회피하기보다는 마주해야 된다고 생각했다." 박문칠, 「보드랍게」,『한국독립영화협회 기타간행물』 vol. 2020, 한국독립영화협회, 2021, 221쪽.

며 그동안 재현된 위안부 피해자 이미지와는 동떨어진 김순악의 다른 이야기를 전달한다. 해방 후 유곽과 술집에서 성매매 한 이야기, 동두천 기지촌에서 양키 물건 장사, 달러 장사, 양색시 장사를 한 이야기, 그리고 그녀의 거짓말까지도. 한국전쟁 이후 기지촌 경제에 편입되어 연명해온 그녀는 활동가들에게 들려준 초기 증언과 달리 위안부 등록 이후에는 백인 혼혈인 둘째 아들의 존재를 감추려고 친아들이 아니라 양색시에게서 얻어 키운 흑인 혼혈아라고 증언했다.[44] 커밍아웃 이후 김순악은 위안소의 기억에서는 해방되었지만 위안소 이후의 기억에서는 그렇지 못했던 것이다.

김순악의 사후에 만들어진 영화 「보드랍게」가 관계자들의 기억에 의존해 그녀의 삶을 재현하며 전달하고자 하는 바는 피해 사실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이해이다. 가령, 위안부 피해자인 김순악이 생계를 위해 기지촌의 포주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그녀의 증언을 낭독한 여성들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냈고 관객은 해방 이후 위안부 생존자가 처한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 영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미군 위안부 문제와 연결함으로써 냉전 개발주의의 군사화된 성노동 제도가 빚어낸 모순을 암시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지만 위안부를 피해자의 자리에만 놓는 재현의 관성은 극복할 수 있었다. 영화는 김순악의 증언만이 아니라 그녀의 침묵, 거짓말, 말할 수 없는 이야기들 또한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했고 전달자의 역할은 다른 세대의 또 다른 젠더 폭력 피해자들에게 맡겨졌다.

「보드랍게」는 성폭력 피해자에서 미투 활동가가 된 여성들이 고(故) 김순악의 증언을 낭독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방식을 통해 두 세대가 겪은 젠더 폭력을 연결했다. 김순악이 증언 도중에 "내가 이 야기해가 '어이구 그랬구나, 참 애 묵었다' 이렇게 보드랍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45]라며 털어놓은 속내는 미투 이후 그녀들이 느낀 고통과 일맥상통한다. 가해자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가

44 김순악 평전의 저자는 김순악이 둘째 아들의 존재를 왜곡한 이유가 아들에게서 받은 상처 때문이었다고 파악하고 고민 끝에 공식 증언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기로 결정했다. 김선님, 「프롤로그」, 앞의 책, 25-27쪽.

45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 『일본군'위안부' 증언집 6: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일본군'위안부'여성들의 경험과 기억』, 여성과인권, 2004, 298쪽.

족-사회-국가 양쪽과 동시에 싸워야 하는 고통이다. 얼마나 말해야, 어디까지 말해야 알아줄 것인가. 이처럼 위안부의 기억을 역사화하려는 포스트기억 예술의 싸움은 위안부의 과거만을 둘러싼 싸움이 아니다. 제국주의, 국가주의, 인종주의, 가부장제, 젠더 차별, 피해자들을 갈라놓는 권력의 분할 지배를 둘러싼, 과거에도 지금에도 계속되는 현재의 폭력에 대한 싸움이다. 이 계속되는 폭력을 멈추기 위해서는 과거의 그녀들의 이야기는 현재의 그녀들에 의해 전해져야 한다.

4 초국적 위안부학(學)을 위하여

반세기 넘게 잊혔던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기억은 피해자들의 용기와 관계자들의 헌신을 통해 국가의 경계를 초월한 전지구적 기억문화의 일부분이 되었다. 위안부 운동의 역사를 함께 써온 포스트기억 세대는 이제 피해자들이 생을 마감한 이후에도 그들의 기억을 이어갈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를 맞이했다. 이 논문에서는 기억으로 연결되어 있는 위안부 피해자와 포스트기억 세대의 증언-서사를 중심으로 '증언 이후의 증언'의 문제를 살펴보았다. 연대적 포스트기억을 가진 관계자들은 피해자들의 사후에도 그들이 남긴 이야기와 기억의 상관물을 바탕으로 증언-서사를 함께 쓰고 있다.

증언-서사는 오랜 세월 침묵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사회적 인정을 요구하며 분출된 역사적 순간이 있는 장소에서 활발히 생산되는 장르이다. 이 장르는 피해 사실의 폭로에 그치지 않고 지식인 작가가 증언자와 독자를 매개함으로써 개인의 기억을 집단기억으로 확장하고 밝혀진 진실에 대한 책임과 사회적 연대를 요청하는 정치적 장르이다. 라틴 아메리카의 증언-서사를 연구한 베벌리는 "서발턴 재현을 위한 기존 문학의 형식과 문체의 타당성, 심지어 지배 언어 자체의 타당성이 위기에 빠진 곳에서 증언서사(testimonio)가 나타난다"고 관찰한 바 있다.[46] 이러한 관찰을 2015년 이후 생산된 포스트기억 예술에 적용한다면 증언-서사의 현저한 증가는 상상의 위기 혹은 서사의 결핍이라기보다는 피해자

46 John Beverley, "Through All Things Modern: Second Thoughts on Testimonio," ***Boundary 2*** 18, no. 2, Summer 1999, p.6.

를 배제한 국가 대 국가 간의 합의가 초래한 역사적 정의의 위기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국사(一國史를) 초과하는 위안부의 기억, '피해자다움'을 벗어난 위안부의 기억은 여전히 말해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위안부 피해자의 과거에 대해서 알고자 한 만큼 현재의 억압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안부를 둘러싼 담론 공간은 전지구적으로 확장되었으나 그럼에도 재현의 초점은 여전히 일제강점기에 일본군이 저지른 잔학행위에 대한 사과와 보상에 한정되어 있고 다른 전쟁들, 다른 위안부들에 대한 폭력은 현재의 증언-서사에서는 대부분 논외로 치부되고 있다. 극히 최근에야 미군위안부, 한국군위안부, 일본인위안부의 실상이 몇몇 당사자와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었으나[47] 일본군위안부 문제와의 연결성은 아직 뚜렷하게 재현되지 않은 상태이다. 사실 이들 '피해 주체'가 겪은 전시 성폭력은 2차대전, 한국전쟁, 냉전의 연쇄 속에서 서로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으나 그 점은 간과되어왔다. 예를 들어 일본군위안부에서 미군위안부가 된 박연이(가명)의 증언은 1997년에 이미 정대협이 간행한 증언집에 수록되었으나 그녀는 자신을 숨겼으며 그녀의 증언은 곧 잊혔다. '위안부를 말할 수 있는 서발턴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부정적인 것은 이처럼 '말할 수 없음'의 문제가 말의 부재보다는 재현의 부재에 있기 때문이다.

위안부 운동이 대중화되는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자에게 요구되는 사회 정체성(social identity)이 만들어지고 위안부는 매춘부일 뿐이라는 역사 수정주의자들의 주장에 노출되면서 한국 사회에서 피해자-활동가의 틀을 벗어난 위안부 재현은 회피되어 왔다. 그러나 여성 인권은 경쟁해야 할 대상이 아니며 위안부 문제는 여성에 대한 제국주의 국가의 범죄인 동시에 남성에 의한 성범죄이다. 위안부 문제를 사죄와 보상할 '책임 주체(국가)'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가의 문제로 환원하여 차별한다면 위안부 운동이 어떻게 여성에 대한 전시 성범죄를 고발하는 초국적 평화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차별은 폭력과 연결된다. 위안부는 말할

47 김정자 증언·김현선 엮음,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한울아카데미, 2013; 김귀옥, 『그곳에 한국군'위안부'가 있었다: 식민주의와 전쟁, 가부장제의 공조』, 선인, 2019; 木下直子, 『「慰安婦」問題の言説空間—日本人「慰安婦」の不可視化と現前』, 勉誠出版, 2017 등 참조.

수 있는가를 다시 묻기 위해 이제 각 위안부 운동들의 연결성뿐만 아니라 국가화와 동화(assimilation), 운동 내부의 갈등과 분열에 대한 분석과 비판도 '위안부학(學)'의 본격적 의제로 다루어야 할 때이다.

참고문헌

기본자료

김선님, 『일본군'위안부' 김순악: 내 속은 아무도 모른다카이』,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편, 도서출판 일일사, 2008.

김숨, 『흐르는 편지』, 현대문학, 2018.

___, 『일본군'위안부' 김복동 증언집: 숭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현대문학, 2018.

미키 데자키, 「주전장」, 2018.

박문칠, 「보드랍게」, 『한국독립영화협회 기타간행물』 vol. 2020, 한국독립영화협회, 2021.

_____, 「보드랍게」, 2022.

변영주, 「낮은 목소리 1, 2, 3」, 1995, 1997, 1999.

윤정모, 『에미 이름은 조센삐였다』, 당대, 1997(초판, 198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부설 전쟁과여성인권센터 연구팀, 『일본군'위안부' 증언집 6: 역사를 만드는 이야기. 일본군'위안부'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 여성과인권, 2004.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한국정신대연구소, 『증언집: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2』, 한울, 1997.

「그들은 짐승이었다」, 『경향신문』, 1992년 1월 16일자, 23면.

단행본

강성현, 『탈진실의 시대, 역사부정을 묻는다: '반일 종족주의' 현상 비판』, 푸른역사, 2020, 134-215쪽.

기이 고티에, 김원중·이호은 역, 『다큐멘터리, 또 하나의 영화』, 커뮤니케이션북

스, 2009(초판 2006), 195쪽.
김귀옥, 『그곳에 한국군‘위안부’가 있었다: 식민주의와 전쟁, 가부장제의 공조』, 선인, 2019, 107-176쪽.
김정자 증언·김현선 엮음, 『미군 위안부 기지촌의 숨겨진 진실』, 한울아카데미, 2013, 314-340쪽.
마르틴 륀케·이름가르트 췬도르프, 정용숙 역, 『공공역사란 무엇인가』, 푸른역사, 2020, 44쪽.
박정애, 『함께 쓰는 역사 일본군‘위안부’』, 동북아역사재단, 2020, 42-57쪽.
서울대 인권센터 정진성 연구팀, 『끌려가다, 버려지다, 우리 앞에 서다 1』, 푸른역사, 2018, 73, 84 및 100쪽.
수전 손택, 이재원 역, 『사진에 관하여』, 이후, 2013(초판 2005), 33 및 41쪽.
안병직 번역·해제, 『일본군 위안소 관리인의 일기』, 이숲, 2013, 43-233쪽.
이토 다카시, 이은 역, 『기억하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가 된 남한과 북한의 여성들』, 알마, 2017, 277-280, 292-296, 299-300쪽.
캐롤라인 노마, 유혜담 역, 『‘위안부’는 여자다: 여성주의 관점으로 ‘위안부’ 역사를 복원하다』, 열다, 2020, 63 및 350쪽.
木下直子, 『「慰安婦」問題の言説空間—日本人「慰安婦」の不可視化と現前』, 勉誠出版, 2017, 199-261쪽.
西野留美子, 『従軍慰安婦—元兵士たちの証言』, 明石書店, 1992, 152-154, 165-166쪽.
Marianne Hirsch, *The Generation of Postmemory: Writing and Visual Culture After the Holocaust*, Columbia University Press, 2012, pp.5, 33, 162.

논문

김수진, 「트라우마의 재현과 구술사: 군위안부 증언의 아포리아」, 『여성학논집』 제30집 1호,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3, 35-72쪽.
박수현, 「작품해설: 비가와 찬가」, 김숨, 『흐르는 편지』, 현대문학, 2018, 292-307쪽.
이혜령, 「그녀와 소녀들: 일본군‘위안부’ 문학/영화를 커밍아웃 서사로 읽기」,

『반교어문학』 제47집, 2017, 247-283쪽.

Carol Gluck, “What the World Owes the Comfort Women,” *Mnemonic Solidarity: Global Interventions*, eds, Jie-hyun Lim and Eve Rosenhaft, Palgrave Macmillan, 2021, pp.73-104.

China Mills and Brenda A. Lefrançois, “Child As Metaphor: Colonialism, Psy-Governance, and Epistemicide,” *World Futures.* vol. 74, Issue 7-8 (2018), pp.503-524.

John Beverley, “Through All Things Modern: Second Thoughts on Testimonio,” *Boundary 2* 18, no. 2, Summer, 1999, pp.1-21.

Sung Hyun Kang, “The U.S. Army Photography and the “Seen Side” and “Blind Sid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The Still Pictures and Motion Pictures of the Korean Comfort Girls in Myitkyina, Sungshan, and Tengchung,” *Korea Journal*, vol. 59, no. 2 (Summer 2019), pp. 144–176.

Abstract

Testimony and Imagination: The Memory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the Art of Postmemory

Kim Ryeosil

Over the past 30 years, the redress movement for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has made the comfort women’s memory as a part of global memory culture beyond historical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or wartime sex crimes by Japanese empire. The victims’ memory and testimony are being represented more actively than ever, as the intergovernmental 2015 Japan-South Korea Comfort Women Agreement, which excluded the victims, rather reinvigorates the redress movement seeking historical justice and concentrates the potency of those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gender violence. Can the comfort women now be called speaking subalterns? As the movement became institutionalized, the hierarchy of representation that determines whose memories can be considered universal came into play. In addition, while the

intellectuals “translate” comfort women’s individual multi-layered experiences into public testimony, their representation can be distorted and their voices can only be heard within the public venues. This paper examines the changes in the memory works by the generation of postmemory since the 2015 agreement and analyzes how they try to go beyond the hierarchy of representation and the aporia of testimony by imagining invisible witnesses, untypical victims, and their untold testimony.

Key words: Japan-South Korea “Comfort Women” Agreement(2015),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an”, Postmemory, “Comfort Women” Studies, Global Memory Culture, ***Flowing Letters***, ***My Name Is Kim Bok-Dong***, ***Comfort***

논문제출 / 2023. 11. 20.
논문접수 / 2023. 11. 23.
게재확정 / 2023. 12. 09.